

■ 논문 ■

집시와 국민국가
-프랑스의 차별원리를 중심으로-

문 중 현

I. 들어가며

유대인과 집시는 유럽의 대표적 소수민족이다.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나의 사회적 금기로 확고히 자리 잡았지만 집시를 향한 편견의 시선과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나치의 집단학살로 희생된 600만 유대인의 죽음은 쇼아(Shoah)로 역사화되고 기억되는 반면, 50만~80만으로 추정되는 집시에 대한 집단학살은 아직 구별되는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이 실행한 집시 절멸작전은 동유럽에서 유랑·정주하던 모든 집시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즘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한동안 약화되었던 집시에 대한 공격과 차별은 오늘날 중부와 동부유럽에서 사회주의 몰락 이후 강화된 민족주의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있다. 더불어 서유럽으로 이주하는 집시에 대한 추방과 배제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모든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국가의 집시 추방정책은 여전히 강하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95%이상의 집시인구가 정주생활을 영위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집시를 유랑하는 민족으로 간주하는 낡은 스테레오타입이 여전히 강하게 존속되고 있다. 2013년 10월 전임 사르코지 정부에 비해 온건적인 이민자 정책을 약속한 사회당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의 지지를 하락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해법으로 동유럽 출신 집시추방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였다. 프랑스 북부 릴 시에서 집시 캠프 2곳이 전격적으로 철거당하면서 어린이 60여명을 포함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갈 곳을 잃었다. 파리 19구에서는 160여명이 거주하는 집시 캠프가 철거당했고 리옹에서는 240여명의 집시가 루마니아로 비행기로 강제송환 되었다. 이러한 사회당 정부의 전국적인 규모의 집시 추방은 내무부 장관인 마누엘 발스(Manuel Valls)에 의해 추진되었다. 발스는 “비위생적인 집시촌은 수용할 수 없다. 그들은 지역 사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철거 명령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¹⁾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프랑스 인들이 발스의 정책을 지지하였다.²⁾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다수 프랑스 인들이 가진 집시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절도와 범죄를 일삼아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비루하고 누추한 민족-은 집시 추방정책의 대중적 지지기반이자 공공안전과 위생을 둘러싼 여론의 쟁점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집시를 향한 서구가 지닌 편견의 근저에는 우선적으로 집시를 종족적 실체로 간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집시에 대한 실체론적 관점에서 종족(ethnic)으로 구별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한다. 따라서 집시라고 불리는 종족 집단의 기원을 밝히고 집시에 관한 전체적 역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집시를 인종과학과 민족국가 형성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타성(異他性:alterité)을 부여받아 만들어진 혹은 발명된 집단으로 간주한다. 먼저 집시에 대한 종족적 분류에 대한 이른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집시라는 인구집단이 종족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근대적 통치술을 발전시킨 프랑스가 집시를 배제하고 정주화시키며 동화, 통제하려 수립하였던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집시에 대한 추방정책은 15세기 집시가 프랑스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집시에 대한 추방과 억압 정책은 프랑스가 절대왕정을 형성하

1) “Dehors les Gitans!”, *Courrier international* (30 septembre 2013)
 2) 주영재, 「프랑스 집시 추방 “선거용 희생양”」, 『주간경향』 (2013년 10월 8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201310011829111> (검색일: 2015년 9월 12일)

고 근대 국민국가로 변모하면서 점차 그 성격이 변해갔다. 집시에 대한 정책은 근대적 국민국가가 수립되면서 인구를 통치해야 했던 국가에 의해 주도되면서 다른 인구 집단과 차별되는 성격을 부여한 바 여기에서는 집시에 대한 이타성이 말들어지는 역사적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럽의 집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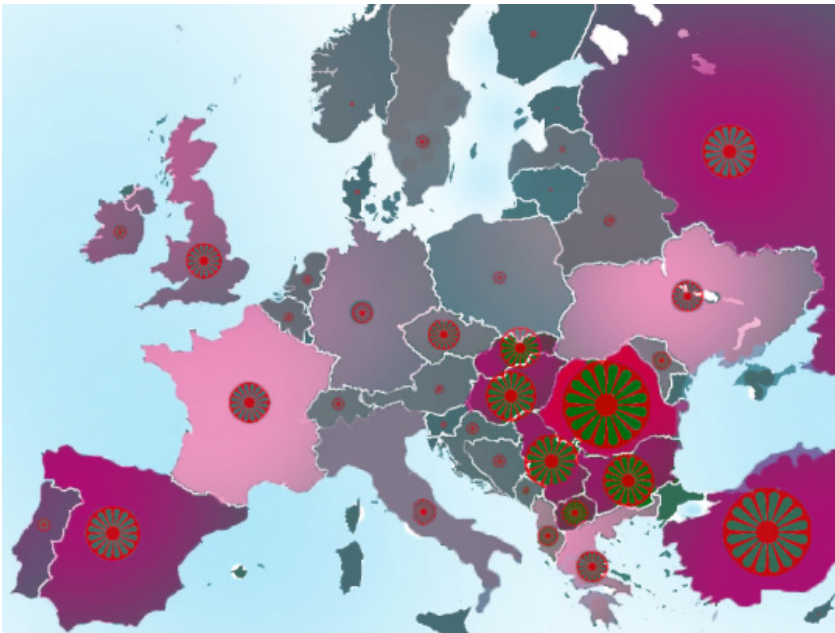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가 흔히 ‘집시(Gypsy)’라고 부르는 유럽의 ‘유랑 민족’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약 7백만~9백만)를 가진 소수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집시는 인도에서 기원해 다양한 형태로 변이된 집시어(chib romani)를 사용하고 주변의 인구집단들과는 가족, 육아, 사유재산 등의 일상적 생활방식과 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중세 이래 집시에게 부여된 유랑민족이라는 이미지는 이러한 정의가 형성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하였다. 여전히 노마드적 생활을 영위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몇몇 소규모 집시 그룹과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집시집단의 이주는 집시에 대한 노마드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집시 인구집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인구통계조사 방식의 차이에 따라, 즉 ‘집시’라는 인구집단의 정의에 따라 규모가 변동되기 때문에 때로는 5배에 이르기 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집시 인구수는 아직까

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다.³⁾ 예를 들어 불가리아에서 집시인구수는 1965년 148,000명에서 1992년에는 313,000명으로 증가하고, 헝가리에서는 1971년과 1993년 통계사이에는 대략 50%의 증가율을 보인다. 또한 루마니아⁴⁾에서는 1977년과 1992년 사이에 집시인구가 80%가 증가하는 반면 체코에서는 1980년과 1992년 사이에 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나타난 이러한 빠른 인구규모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무엇이 이러한 통계의 오류를 발생시켰는가? 그것은 ‘집시’라는 인구집단이 숫자로 표현되지 않고 오직 ‘명칭’으로만 표현되어 왔기 때문이다. 중

- 3) 전 지구적으로 추정되는 집시인구 1400만 중 700~900만이 거주하는 유럽의 집시 분포도
“Council of Europe website” at the Wayback Machine (archived February 21, 2009). European Roma and Travellers Forum (ERTF). 2007. http://en.wikipedia.org/wiki/Romani_people#cite_note-140 (검색일: 2014년 12월 14일)



- 4) 루마니아는 동유럽에서 가장 많은 집시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집시가 전체인구의 9.4%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족적 범주화(catégorie ethnique)로 집시의 인구집단 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조사자에 의한 설문방식과 조사대상이 가진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전자는 조사자의 ‘객관적 범주화’에서 출발하고 후자는 피조사자의 ‘주관적 범주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두 조사 방법의 차이는 당연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집시라는 문화적 재현의 범주를 객관적 인구집단의 수로 전환하는 데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활용된 객관적 범주화 방식은 먼저 실제적 종족단위로 집시를 정의한 이후 이 기준에 따라 인구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1993년 루마니아 인구통계 조사에서는 선거인 명부와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는 기준을 통해, 그리고 1993년 헝가리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방식에서는 인구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삶의 방식(style de vie)’이라는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1995년 불가리아에서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집시’라고 지칭되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범주화 1970년과 1980년 체코 정부는 언어, 삶의 방식, 자녀의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인류학적 지수(indices anthropologiques)’를 개발하여 조사하였다.⁵⁾

이와 같은 객관적 범주화 방식과는 달리 주관적 범주화 방식은 보다 민주적 인구조사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 방식에서는 설문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이 ‘롬(rom 혹은 roma)’과 ‘치간느(Tsigane)’라는 범주를 혼동할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한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중요시해 더 이상 자신에게 ‘집시’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무엇보다 설문 문항에 대한 대답이 가져다줄 미래의 이익 혹은 불이익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기피할 수도 있다. 주관적 범주화 방식으로 대표적인 집시인구 조사는 1991년 체코 정부가 시행한 인구 조사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집시라고 밝히는 32,903명 가운데 집시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50.5%에 불과한 반면 집시어를 사용하는 24,294명 중 자신을 집시라고 인정한 사람은

5) Mathieu Plésiat, *Les Tsiganes, Entre nation et négation* (Paris: L'Harmattan, 2010), pp. 10-11.

68.5%에 불과 했다.⁶⁾

위에서 살펴본 동유럽 국가의 인구통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집시’라고 불리는 인구집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한 정량적 결과들은 신뢰할 만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구조사의 중요한 출발점, 즉 “역사적으로 ‘집시’라고 불린 집단을 하나의 객관적 종족(ethnie)범주로 설정할 수 있는가?”라는 전제가 가진 불명확성에서 기인한다. 오랜 시간 유럽의 다양한 지역에서 치간느(Tsigane), 롬(Rom), 유랑민족(Gens du voyage), 지탕(Gitan), 보헤미안(Bohemien)등으로 불렸던 집단은 하나의 객관적 단일체가 아니다. ‘집시’라는 명칭은 유럽인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수많은 이름들 중 하나일 뿐 집시 스스로에게는 관계없는 이름이었다. 집시를 지칭하는 이름들은 혼용되면서 하나의 대상에 다양한 이름이 부여되기도 하고 하나의 이름이 다양한 그룹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집시 집단 내부에서 스스로를 구분하기 위한 명칭도 여러 가지다. 다른 유럽인들이 집시를 불렀던 명칭 그리고 집시들이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 불렀던 명칭은 대부분 집시들의 직업과 관련된 단어에서 파생하였다.

프랑스에서 ‘치간느’ 동유럽에서 ‘찌간닌(Ciganin, Tigan, Tiganin, Cigany)’⁷⁾로 불린 집시들은 지역적 다양성과 더불어 시간적으로도 다양하게 불렸다. 중세 이래 서유럽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집시들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경유하면서 여러 이름을 갖게 된 것이

6) Roma and Stastics, Project on Ethnic Relations, Strasbourg, 22-23 may 2000, <http://www.per-usa.org/Reports/PERStrasbourg.pdf> (검색일: 2015년 8월 30일)

7) 오승은, 「포스트 사회주의 동유럽의 새로운 집시 대중문화」, 『역사와 문화』, 19호(2010), 161쪽.

집시와 국민국가

다.⁸⁾ 집시들 중 19세기 후반 루마니아의 몰다비아(1855년)과 발라키아(1856년) 노예제가 폐지됨에 따라 서유럽과 아메리카까지 이주한 집단은 자신들은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집시’라는 명칭을 거부하고 스스로 Rom 또는 Roma로 부르며 다른 집시집단과 달리 동일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1971년 국제집시회의(World Romani Congress)를 통해 성립된 ‘롬국제연합(IRU)’은 민족을 드러내기 위해 도시 로마와 혼동될 수 있는 롬(rom)이 아닌 롬(rrom)으로 명칭을 표기하였다. 이는 자신의 민족적 기원을 인도로 공식화하면서 힌두어 ‘돔바(Domba)’ 또는 도마(Doma)에서 파생된 ‘로마니’ 혹은 ‘롬’으로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함이었다.

근대 프랑스의 법률에서 집시는 노마드(nomades) 혹은 유랑민족(gens de voyage)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주의해야 할 점은 법률적 범주인 유랑민족이 종족적 집단인 ‘집시’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유럽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집시들은 정주적(sédentaire)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 유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중 다수는 집시가 아닌 프랑스인들로 주로 계절 농업노동자 혹은 서커스, 공연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1세기 프랑스에서 동유럽에서 이주해 온 집시들은 프랑스인이 아닌 미등록 체류인(sans papiers)으로 행정적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절도, 범죄,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켜 세계적인 관광도시 파리의 공공 치안과 미관을 훼손하는 집단으로 배척받고 있다.

8) 집시의 명칭과 분류

사람들 → 집시		
어원	명칭	
그리스어	프랑스	치간느 (또는 보헤미안)
	독일	치고이너
	이탈리아	징가리
	동유럽	찌가닌
이집트인	영국	집시
	스페인	히타노

이 표는 김희경, 『프랑스의 집시와 이동의 문제』, 『프랑스학연구』, 61권 (2012), 186쪽에서 인용하면서 변용한 것입니다.

III. 집시의 탄생

먼저 집시의 기원에 관한 학설을 살펴보자. 집시는 한때 이스라엘의 사라진 부족에서 그 기원을 찾는 성경적 전통이 중세에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집시의 역사적 기원은 크게 두 가지 학설로 구성된다.

1)프랑스에서 15세기에 등장하여 18세기까지 지속된 이집트 기원설이다. 1427년 8월 17일 최초로 프랑스 영토에 나타난 백여 명의 남성과 여성, 아동으로 이루어진 집시에 대한 기록은 『르 주르날 땡 부르주아 드 파리(Le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에서 나타난다.⁹⁾

“저지 이집트에서 왔으며, 매우 독실한 기독교도를 자처하고 있다. 이미 예전부터 기독교인이었으나 사라센인들에게 정복당해 잠시 배교한 상태에서, 다시 기독교인에게 정복당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세례를 거부한 자들은 모두 죽었다.”

여기에서 집시는 이집트 출신의 기독교 순례자들(pélerins)로 이집트인을 뜻하는 ‘에집시앵(Egyptiens)’으로 지칭되었고 검은 피부로 인해 프랑스인에게 대단히 낯선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집시들이 교황으로부터 고해의 순례를 명령받은 집단으로 알려지면서 파리의 대주교는 이들을 환대하였다. 집시의 복장, 피부색, 귀걸이와 특히 이들이 행하는 점술(손금보기)은 파리 시민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집시가 행하는 주술적 행위들이 대주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대주교는 점성술사와 점성술사의 고객들을 파문하기에 이르러 집시는 파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전되던 민담이나 전설에 기댄 집시에 대한 이집트 기원설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집시에 대한 신비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Notre-dame de Paris)』(1831), 1875년 조르주 비제에 의해 오페라로 만들어져 더욱 유명해진 메리엔느의 소설 『카르멘』(1845)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집시여인은 낭만적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9) *Le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17 août 1427)

2)18세기 언어학과 인종학의 발달과 더불어 성립된 인도 기원설이다. 인도 기원설에서 집시는 언어적으로 유사한 인도의 종족인 “Cingar, Cengar”에 기원한 종족집단으로 규정된다. 여기에서 집시는 인도 남부의 하층민인 파리아(Paria)보다는 좀 더 상위계급으로 법도 없고, 춤추고 노래하고, 흠치고 속임수를 쓰는 유랑민족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집시는 공동체에는 필요하지만 힌두교에서 금하는 ‘불순한’ 직업에 종사했던 백정, 정육업자, 무두장이, 묘지기, 냥마장수, 세공장인, 곡예사, 광대, 등으로 인도사회에서 정주하는 생활이 금지된 카스트 외부의 신분집단으로 생각되었다. 10세기 인도에서 출발한 집시들이 이란고원과 중앙아시아에 정착하며 몽골제국을 섬기다가 몽골제국 몰락이후 14세기에는 비잔틴 제국에까지 도달, 이후 유목민의 길을 따라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⁰⁾

이집트 기원설과 달리 인도 기원설은 언어학과 인종학적 가설에서 출발했으나 인도의 로하라(Lohara), 반디자라(Bandijara), 산사(Sansi), 그리고 상가르(Cangar, Cingar, Cengar) 언어는 몇몇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집시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언어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¹¹⁾ 언어학적으로 가장 유사성이 많고 수레바퀴 문양을 사용하는 인도 북동부 란치(Ranchi) 지방의 사드리(sadri)족은 집시와는 달리 정주하는 삶의 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집시의 기원 종족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롬국제연합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규정한 돤바 혹은 롬바(Romba)족 역시 마찬가지이다. 돤바 혹은 롬바족은 인도 북부의 여러 소수 종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돤바족을 아리안족의 침입 이후에도 유지된 인도 토착 문명의 후예들로 생각하는 학설도 있으나 이런 학설은 인도 고대사에 대한 비약적인 해석일 뿐이다. 결국 오늘날 집시의 인도기원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거가 부족한 상황이며 돤바족과 집시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 한편 집시의 인도 기원론에 대한 문헌적 근거는 주로 아라비아, 페르시아인들의 기록이다. 이런 기록들에서 지아트(Djat), 조트(Zott), 카울리(Kauli), 루리(Luri) 등으로 표기된 중앙

10) 집시의 기원에 관한 동유럽 학자들의 성과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박정오, 「집시의 기원과 유럽 이주 그리고 루마니아」, 『동유럽발칸학』, 2호 (2005), 382~388쪽.

11) Marcel Courthiade, “Rom”, *Encyclopédie Universalis*, 2013.

아시아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은 집시라는 종족과는 상관없이 인도에서 이주한 모든 인구를 지칭하는 용어였을 뿐이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자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집시들을 다시 이주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로 이주한 ‘집시’들이 도마니(Domani) 혹은 나와르(Nawar)이고 아르메니아 지역에 안착한 집시를 로마니(Lomani) 혹은 포사(Posa), 그리고 유럽으로 계속 이주해간 집단이 로마니(Romani)이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집시의 기원, 이주 원인과 이주 경로는 불분명 하다. 하지만 집시가 18세기 이후 인도북부에서 기원해 유럽으로 이주한 하나의 단일한 종족집단으로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이것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학문은 당시의 비교언어학으로 집시의 언어, 즉 로마니아어(romani)를 북부 인도 지역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계열의 언어로 정의하였다. 18세기 언어학에서 집시의 언어는 인도계 주민의 이산의 결과로 다양한 방언 속에서 나타난 단어와 문법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로 간주되었다. 독일의 역사학자인 그렐만(Grellmann, Heinrich Moritz Gottlieb:1756-1804)은 이러한 비교언어학에 바탕을 두고 집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가 1783년 출간한 『집시(Die Zigeuner)』는 1810년 프랑스에서 『보헤미안인들의 역사(Histoire des Bohémiens, ou tableau des moeurs, usages et coutumes de ce peuple nomade)』로 번역되었을 정도로 유럽의 집시연구에 있어서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그렐만의 연구 이전에도 산스크리트어와 유럽의 유목민족이 사용하는 방언의 유사성은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인정되는 학설이었다. 그의 업적은 이러한 언어적 학설을 통해 보헤미안, 치간느, 징가리, 이집트인, 집시 등으로 불리던 이동 집단이 하나의 종족을 구성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¹³⁾ 따라서 그렐만 연구 이후 집시는 인도인이라는 종족적 기원을 가지고, 공통의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다른 인구집단과 구분되는 동질적 집단으로 정의되었다.

“보헤미안들의 기원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어느 나라의 인

12) *Ibid.*

13) Plésiat, *Les Tsiganes, Entre nation et négation*, p. 21.

집시와 국민국가

어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최초이자 필수적인 연구에서는 보헤미안의 언어가 토착민의 언어로 사용되는 곳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인도(힌두스탄)일 수밖에 없다.”¹⁴⁾

그렐만의 저작은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집시학이라는 종족학이 성립하는데 기여하였다. 그의 연구가 다른 나라에 알려지면서 영국에서는 1888년 ‘집시 연구회(Gypsy Lore Society)’가 창립되었다. 하지만 그렐만의 연구는 주로 잡다하면서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과도한 일반화 근거한 것이었다. 그의 연구가 헝가리와 트란실베이니아 지역의 몇몇 집시 가족의 언어가 지닌 산스크리트어와의 유사성을 조사한 헝가리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호르티스(Samuel Augustini ab Hortis:1729~1792)의 관찰에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은 이후 집시연구자들에게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이 당시의 집시연구는 오로지 몇몇 문헌에 의존해 해석을 추구한 전형적인 ‘골방의 학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집시 연구자들은 연구가 내포하고 있는 문헌적 근거와 경험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불일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진정한 ‘집시’는 더 이상 유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이라도 한편으로는 실제적 집시집단을 찾아 나서기도 하면서 현실과 이론의 간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집시 연구들은 집시의 시원적 요소로 항상 인도를 바탕으로 두고 집시를 본질화하였다. 18세기 유럽에서 인간과 민족의 기원을 인도에서 찾는 인도 기원설은 헤르더로 대표되는 독일 낭만주의 지식인들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던 견해였다. 당시 많은 역사가와 지식인들이 인도를 인류문명의 모태, 즉 ‘어머니 인도(Mère Inde)’로 상정하는데 있어 언어학은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¹⁵⁾ “언어학은 아리안족을 몽골족과 챔족(cham)의 후예, 그리고 셈족(sémite)에 대비되는 조상으로 설정”¹⁶⁾할 수 있게 해주

14) 앙리에뜨 아쎬오, 김주영 역, 『집시, 유럽의 운명』 (서울: 시공사, 2003), 115쪽에서 재인용.

15) Léon Poliakov, *Le mythe aryen. Essai sur les sources du racisme et des nationalismes* (Bruxelles: Edition Complexe, 1987), p. 212.

16) *Ibid.*, p. 214.

었다. 또한 인류가 아닌 오로지 특별한 인종, 즉 아리아 인종을 역사와 세계의 주인으로 만드는 아리안 신화의 출발점이었다. 그뿐만이 교수로 재직하였던 독일의 괴팅겐(Göttingen) 대학은 인류 인도기원설에 근거해 비교언어학과 역사를 연결시키려는 지식의 중심지였다.

1788년 영국의 시인이자 법률가인 윌리엄 존스(Williams Jones)가 만든 인도유럽어족이라는 개념은 산스크리트어와 유럽의 유랑민족 사이에서 발견되는 친족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그리스어, 라틴어와의 친족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대부분의 동양학자들이 존스의 학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서 서구의 역사가, 작가들은 인도와 유럽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독일 낭만주의 운동의 선구자인 프리드리히 쉐르겔(Friedrich Schlegel: 1772~1829)은 인종과 언어의 친족성을 인류학 위에 정초하였다. 그는 ‘인도-게르만 언어’에 ‘인도-게르만 인종’이라는 과학적 실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독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인도-유럽인종’이라는 개념을 선호하기도 하였지만 ‘인도-게르만 인종’ 신화는 문학과 역사학에서 대중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이 신화는 영향을 미쳐 미슐레(Michelet)는 『로마사(Histoire roamine)』(1830)에서 “태양의 운행과 지구의 자성을 따라 인간의 기나긴 이주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인도에서 프랑스로 ... 인종과 종교의 모태인 인도에서 서유럽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18세기 유럽에서 집시의 인도기원설은 비상식적 학설이 아니었다.¹⁷⁾

19세기 학문적 관심의 변화와 더불어 유럽에 국민국가가 완성되기 시작하고 인종학이 대중화되면서 유럽의 소수민족이었던 집시와 유대인은 완벽한 타자로 차별받기 시작하였다. 유대인은 셈족의 후예로 정의된 집시는 ‘인도유럽인종’과 ‘아리아인종’의 후예와는 정반대의 기원을 가진 민족 집단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배척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집시가 다른 한편에서는 인종학적 유럽의 기원을 밝혀줄 매혹적인 집단이 되었다. ‘진정한 집시(vrai tzigane)’가 유럽인의 조상을 찾기 위한 열쇠가 된 것이다. 집시를 혐오하면서도 집시의 신체가 지닌 아름다움, 생명력과 건

17) *Ibid.*, p. 227에서 재인용.

장함이 찬양되었고 노동을 회피하는 게으름은 비참한 생활 조건 속에서도 가지는 여유와 낙천성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집시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가 곧 집시의 박해가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집시(Tsigane asocial)’와 ‘좋은 야만인 집시(Tsigane bon sauvage)’라는 집시에 대한 상반된 이미지는 항상 공존하였다.¹⁸⁾

19세기 인류학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인종’이라는 개념은 ‘집시’라는 종족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유럽의 인류학자들에게 먼저 발견해야 할 인간들은 비유럽인이자 타자였고 다른 세계였다. 먼저 아메리카에서 시작해서 다른 대륙의 주민까지 유럽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했고 나아가 인간과 민족들에 대한 인종과학을 만들어 나아갔다. 유럽에 거주하는 ‘집시’는 이러한 인종과학이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대상이었다. 이제 유럽의 인종론자에게 집시는 먼저 자신들과 다른 인종적 분류의 대상이었고 다음으로 여러 개의 종족적 하위 범주를 포함하는 나뉠 수 있는 내부의 언어적, 생물학적 차이를 가진 종족집단이 되었다. 그래서 집시는 전통적인 집시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유랑 생활을 지속하며, 표준적인 집시어(romani)에서 파생된 단어를 포함하는 방언 사용하는 예니쉬(Yeniche), 타타르(Tatara), 토크르(Tinker) 혹은 퀸키스(Quinquis)로 나뉘어졌다. 인종론자들은 집시 내부의 이러한 하위 집단은 혼혈화된 집시간의 결혼과 집시와 집시가 아닌 사람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설 위에 혈통의 순수성에 따라 범주화 하였다.¹⁹⁾ 하지만 오늘날 집시 연구자들에게 집시는 어떤 그룹도 다른 그룹을 대표하지 못하는 모자이크와 같이 파편화된 다양한 그룹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집시에 대한 인종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집시들의 피부색에 관한 것

18) Will Willems, *In Search of the True Gypsy. From Enlightenment to Final Solution* (London: Frank Cass Publishers, 1997), p. 223.

19) 앵거스 프레이저는 오늘날까지 집시를 종족적으로 분류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에게 타타르는 족보상으로는 집시에 속하지만 혈통적으로는 집시피의 순수성이 덜한 집단으로, 퀸키스는 고립된 집시 분파의 후손으로 다른 집시들과 신체적, 문화적, 언어적인 유사성이 없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Angus Fraser, *The Gypsie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2), p. 299.

이다. 인종론자들에게 피부색은 생리학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식별의 표시였다. 하얀 피부와 대비 되는 검은 피부를 보유한 집시는 동유럽에서 흑인으로 불렸다. 따라서 그들에게 검은 피부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서는 유랑하는 전통적인 삶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또한 하얀 피부를 보유한 집시는 자신을 집시로 표명할 지라도 사람들은 집시로 인정하지 않았다.²⁰⁾

IV. 집시와 국민국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종론적 편견과 함께 집시가 영위하는 유랑적 생활방식은 이들에 대한 혐오의 주된 근거였다. 1418년 프랑스에 처음 집시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유랑은 프랑스인들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되어가면서 유랑은 사람들에게 경멸받고 배척되며 국가에 의해 금지, 통제되어야 하는 생활방식이었다. 집시의 유랑적 생활방식에 대해 집시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엄격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집시를 국가의 영토에서 추방시키는 배제(exclusion), 다음으로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집시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처벌(réclusion), 마지막으로 배제와 징벌을 가하는 정책들의 실패로 인해 새로운 집시에 관리방식으로 모색되는 포섭(inclusion)으로 변모되어갔다. 한편,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에 대해 실행했던 유럽 국가들의 방식과 흡사한 양태를 지닌다. 근대 유럽의 역사에서 유대인 차별정책은 유대인의 개종과 정체성의 포기를 강요하는 동화 정책과 이러한 동화정책이 실패할 경우 이어서 나타나는 추방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생명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절멸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프랑스 역사에서 집시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이러한 원리에 따른 네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1504년에 시작되어 대략 반세기 동안 지속되는 집

20) Jean-Pierre Liégeois, "Les Roms au coeur de l'Europe", *Minorités à l'est: variations sur la reconnaissance identitai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5), p. 37.

시에 대한 배제 원리에 기초해 수립된 추방정책이 실시된 시기, 다음으로 1561년 이후에는 형벌을 통해 교화하려는 포섭정책으로 변모한 시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정주화와 동시에 강제 수용소로의 이주 정책이 실시된 시기, 마지막으로 1969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는 집시들의 삶의 방식을 전향시키려는 동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배제원리에 기반을 둔 프랑스 집시의 추방정책은 중세 프랑스 왕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504년 루이 12세는 자신의 왕국에 “유랑하는 불청객(Intrus vagabonds)” 이자 “정체불명의 사람들(Personnages inconnus)” 혹은 ‘이집트인’이라고 불리는 집시의 존재를 우려해 루앙(Rouen)의 대법관에게 이들을 사냥하고 강탈하듯 쫓아내라는 왕명을 내렸다. 1510년 국정자문회의(Grand Conseil)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집시에 대해 “이집트인으로 불리는 이들에 대해 프랑스 왕국은 교수형”이 아닌 추방을 권고하였다. 1539년 프랑수아 1세는 보다 광범위한 집시의 추방령을 내렸다. 여기에서 집시는 “결코 왕국으로 들어오거나 머무를 수 없는” 집단으로 정의되었다.²¹⁾ 그러나 이러한 추방정책은 국가권력에게 효율적이지도 경제적이지 못한 정책이었다. 16세기 전반 프랑스는 주권이 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권력은 전 프랑스 영토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점차 지역의 사법과 행정을 중앙권력이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절대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후 주된 국가의 관심사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인구를 증대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집시에 대한 추방정책은 지속되기 어려웠다.

이후 집시에 대한 추방은 포섭의 원리에 기초한 감금(réclusion)으로 대체되었다. 19세기까지 지속된 이 정책에서 ‘보헤미아인’, ‘이집트’인으로 불린 남성 집시는 노역장으로 파견되어 강제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에 착수한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고 여성과 아동은 함께 구빈원(hôpital général)에 감금되었다. 1561년 샤를 9세는 최초로 집시에 대한 노역형을 칙령으로 선포하였다. 칙령은 “만일 집시가 발견되거나 되돌아오면 2달 내에 판사는 즉각적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남자들은 수염과 머리를 자르고, 여자와 아동은 머리를 자른다. 그리고 남자는 노역장의 대

21)Plésiat, *Les Tsiganes, Entre nation et négation*, p. 45.

장에게 인도해 3년 동안 복무하게 하라”²²⁾라며 프랑스 내의 집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1666년 루이 14세의 칙령으로 실행된 노역형을 통한 구금정책은 집시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귀족의 토지를 몰수하는 형벌을 가할 만큼 강력히 적용되었다. 이 칙령을 통해 집시는 어떠한 형태의 법적 절차도 필요 없이 체포, 감금된 다음 노역장으로 보내어졌다. 1682년 노역형이 불가능한 아동을 구빈원에 감금하는 왕령이 발표되었고 1764년 왕령은 다시 구금의 범위를 아동과 여성 그리고 지체부자유자까지 확대시켰다.²³⁾ 법률의 조항에 명시된 법 적용의 대상은 ‘집시’라는 종족집단으로 정의되어 있었지만 형법적 처벌은 집시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이 법률은 유랑민, 도시의 유랑하는 걸인과 사회 규범에서 이탈하는 프랑스인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노역형과 감금은 19세기 초반까지 지속되다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병역과 공공 노역으로 변환되었다. 감금의 장소도 구빈원(hôpital général)에서 빈민수용소(dépôt de mendicité)로 대체되었다.

제 3공화국인 성립된 19세기 후반, 유랑생활에 대해 적대적인 프랑스 정부는 집시들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집시들은 유랑하는 생활방식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랑의 범위는 줄어들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집시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의 집시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잠재적 피의자로 집시는 경찰의 일상적인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었다. 또한 동유럽에서 농노제가 폐지되기 시작하면서 서유럽으로 이주하는 다양한 집시 그룹의 이국적인 외양, 관습 그리고 이들의 빈곤은 프랑스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집시인구를 통치하는 포섭(inclusion)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1895년 3월 3공화국은 프랑스 국내의 모든 ‘노마드, 보헤미안, 부랑자’에 대한 인구 조사(recensement des nomades, bohémiens et camps

22) François Vaux de Foletier, *Les Tisganes dans l'ancienne France* (Paris: Connaissance du Monde, 1961), p. 49.

23)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에서도 절대왕정 체제가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집시는 정착과 동화를 프랑스와 비슷하게 강요당했다.

volants)’를 실시하였다. 근대 국가의 통치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집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907년 프랑스 정부는 ‘호랑이 기동대(Brigades du Tigre)’라는 별명으로 불린 ‘경찰기동대(Brigades mobiles de police)’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프랑스 유랑인들과 집시를 외양만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1895년 인구조사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유랑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신분증명서를 1912년 제정된 법률에 의거 발급하였다.²⁴⁾ 이 법률에 따라 유랑인은 ‘인체특징기록수첩(carnet anthropométrique d’identité)’을 소지해야할 의무가 생겼다. 1907~1908년에 발송된 내무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부랑자 종족, 로마니첼, 보헤미안, 치간느(vagabonds à caractère ethnique, Romanichels, Bohémiens, Tsiganes)’에 대한 상세한 사진기록이 생산되었으며 이러한 사진기록의 분류에는 베르티용식 인체측정법(système Bertillon)이 적용되었다.²⁵⁾ 이 분류방식은 키, 피부색, 신체적 특징, 지문 등으로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개발된 인체 측정법이다. 이것은 범죄자의 얼굴 전면 사진과 측면사진을 찍어서 피의자의 신체 특성을 기록하는 경찰의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키, 상반신의 길이, 팔의 폭, 머리의 길이와 넓이, 광대뼈의 반지름, 오른쪽 귀의 길이, 가운데 손가락의 길이, 왼쪽귀의 길이, 왼쪽 팔꿈치의 길이, 눈의 색깔, 지문과 정면 측면의 사진”²⁶⁾ 등의 정보가 인체특징기록수첩 속에 기록되어야 했다. 집시의 신체적 특성을 측정하고 기록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는 분명 생리학적 지표를 기준으로 인종을 분류해 내던 전형적인 근대 인종주의 담론의 효과였다. 비록 1912년 법률은 노마드의 범주에 프랑스인 행상과 유랑민도

24) ‘행상 직업과 노마드들의 통행규제와 관련한 1912년 7월 16일 법’

행정적 법제	명칭
1912년 법	노마드(nomades)
1969년 법	유랑하는 사람들(Gens du voyage)

김희경, 같은 논문, 186쪽.

25) François Vaux de Foletier, *Les Bohémiens en France au 19e siècle* (Paris: J-C Lattés, 1981), p. 171.

26) Félix Challier, *La nouvelle loi sur la circulation des nomades: loi du 16 juillet 1912*, (Librairie de jurisprudence ancienne et moderne, 1913), p. 359.

포함시켰지만 이들과 달리 집시들은 로마니첼(Romanichels), 보헤미안, 티간느로 불리는 노마드, 즉 생물학적 집단으로 규정되었다. 비록 인종적 특성이 의회의 입법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법률제정을 주도한 의원들에게 인종은 당연한 과학적, 생물학적 인간 분류의 기준이었다.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집시들에게 보장된 평등한 시민권에 대해 인종적인 차별 근거를 확립하였다. 이로써 집시는 다시금 일반적인 프랑스 시민에서 분리된 다른 종족집단으로 국가에 의해 가시화되어 근접감시(étroite surveillance)의 대상이 되었다. 처벌과 정주하는 삶에 대한 강요, 인구조사와 경찰의 감시는 모두 동일한 정치적 원리에서 성립되었다. 이전 시기 집시를 영토에서 추방하던 배제의 정치가 아닌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포섭의 정치로 변모한 것이다.

이후 60여 년간 유지되던 이 법률은 1969년 법²⁷⁾에 의해 변경 되었다. 하지만 69년 법률에서는 노마드라는 명칭이 ‘여행하는 사람들’로 변경되고 신체특징기록수첩이 ‘통행허가증(livret de circulation)’으로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국가가 이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의지와 정주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은 포기되지 않았다. ‘통행허가증’은 의무적으로 소지되어야 했고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형사상의 범죄행위로 처벌 받았다.

유럽에 거주하는 집시에 대한 가장 가혹한 탄압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주도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집시에 대한 나치의 인식은 모순적이었다. 나치당과 행정부의 지도자들은 집시를 퇴화된 노마드로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Himmler)로 대표되는 나치의 정통 인종론자들은 집시를 게르만의 조상인 인도유럽인종의 순수성을 가장 잘 보유한 인종, 즉 보호해야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1938년 12월 히틀러는 명령서 「집시의 재앙에 맞선 투쟁」에서 집시인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출발한 집시문제를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혼혈화된 집시를 집시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집단으로 간주하면서 순수한 집시와 혼혈된 집시를 구분하는 새로운 신분증 발급하였다. 1935년 뉘른베르그 인종법은 유대

27) ‘이동직업과 고정적 주거지 없이 프랑스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1969년 1월 3일 법’.

인만을 대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정책은 집시를 위한 인종 법이었다. 내무부 소속 인종우생학과 인구생물학 연구소의 로베르 리터(Robert Ritter)는 전체 집시인구 중 약 10%를 순수한 혈통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를 ‘반사회적 요소(éléments asociaux)’로 규정하면서 순수한 집시는 유랑생활을 보존시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한 반면 혼혈집시는 동유럽 식민지인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으로 이주시키고 강제적인 불임수술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1942년 히틀러가 서명한 집단수용소로의 강제이주 명령에서 순수한 집시와 혼혈 유대인을 사회에 통합된 집단으로 간주되어 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독일에 거주하던 2만 6천의 집시 중 2만 명이 이 정책에 해당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실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이송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한 집시가 13 080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많은 집시들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화를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²⁸⁾

나치의 집시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던 1940년 프랑스 제3공화국은 “노마드의 멈추지 않는 이주는 적국 스파이에게 정보를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도시에서 일체의 집시의 이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을 위반할 경우 1년에서 5년까지 감옥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집시를 강제수용소에 이주시키는 것 보다는 거주지지정(assignation à résidence)명령을 통해 감시와 통제에 대한 인력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을 선호하였다. 1940년 7월 독일의 프랑스를 점령 이후 비시정부가 수립되자 집시는 새로운 상황에 놓였다. 독일군 중령 한스 스피델(Hans Speidel)은 프랑스 점령군 사령부에 보낸 편지에서 각 지역 행정 관료의 결정에 따라 점령지의 집시를 프랑스 경찰이 감시하는 수용소로 이송시킬 것과 독일 점령지역으로 이주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군의 요청은 프랑스에서 규정한 집시와는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 지방행정관은 독일에서 규정된 종족집단으로서의 집시보다는 1912년, 1940년 법률에서 규정된 유랑민을 독일군에서 제안한 집시로 해석하였다. 1940년 법률에서 노마드는 “로마니첼로 종족적 특성 보이는, 직업을 활동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고정된 직업이 없는” 집단으로 정의되었다. 독일 점

28) Plésiat, *Les Tsiganes, Entre nation et négation*, pp. 68-70.

령군 사령부가 정의한 집시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유랑민의 법률적 정의에는 시장의 노점상인들과 방랑자들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프랑스 지방행정관들은 독일군의 요청에 노마드나 집시가 아닌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달갑지 않은 부랑자 같은 ‘기피인물(indésirables)’을 보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2차세계대전기 프랑스 점령지역의 행정관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골칫거리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계기로 점령군 사령부의 명령을 활용한 것이다. 1994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현대사 연구소는 1940년과 1946년 사이 프랑스 노마드의 수가 3000명 정도에 불과했으며, 노마드에 대한 독일과 폴란드로 강제이송은 실행되지 않았고 실제 이 시기에 프랑스 내 집단수용소에서 사망한 100여 명은 기근 속에서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²⁹⁾ 이것은 3만여 명의 집시가 프랑스에 기록되었으며, 이 중 16명에서 1800명까지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기존 연구에 비해 그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2차 세계대전 중 27개의 수용소가 있었고 그 중 22 곳의 수용소는 집시만 수용했거나 혹은 대다수 수용된 사람들이 집시였다. 이러한 수용소의 렌(Rennes)지방의 몇 십 명 단위 수용소에서부터 1000여 명을 수용한 몽트뢰-벨레(Montreuil-Bellay)수용소까지 매우 다양 규모로 설치되었다. 내무부가 관리하는 수용소의 소장은 장교나 하사관, 예비군, 경찰에서 충원되었고 수용소 경비 임무는 경찰(gendarme)이 담당하였다. 어린이는 제외되었지만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은 수용소 내부의 사역뿐만 아니라 기업체, 농장에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다. 수용소는 태업과 도주를 비롯한 수용된 사람들의 저항과 운영하는 행정력의 미비함으로 인해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세기 초 집시가 유럽으로 이주했을 때 이들은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주는 낯선 이방인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유랑하는 삶의 방식과 이교도적 문화는 유럽인들에게

29) Denis Peschanski, *Les Tisganes en France: 1939~1946* (Paris: CNRS, 1994), pp. 133-134.

두려움과 혐오를 불러일으켜 집시는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봉건적 사회가 해체되어 감에 따라서 집시는 혼욕과 처벌의 대상이 되어 국가에 강제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이후 근대적 국민국가가 형성된 시기에는 국민으로서 통합의 대상이 되어 정주하는 삶의 방식을 강요당하였다.

역사적으로 국가에 의해 다른 인구집단으로 분류되어온 집시가 인종화된 것은 18세기 부터였다. 막연히 로마니첼, 티간느 등으로 불리며 이집트에서 기원한 이주민으로 간주되던 집시는 언어학과 인종학이라는 근대적 지식을 통해 인도-유럽 언어와 인종 학설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종족으로 대상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집시에 대한 인종화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시행된 절멸정책의 피해자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집시는 인종화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유랑민 집단들 중의 일부였다. 독일 점령군 사령부가 주도한 강제수용소로의 이주정책은 프랑스 지방행정의 미비와 집시에 대한 다른 법률적 정의로 인해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동유럽에 거주하던 절멸정책의 대상이던 집시에 비해 프랑스에서는 미미한 희생을 낳았다.

오늘날 집시들은 하나의 정해진 공간이자 정치적 공동체인 유럽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자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날의 박해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양립되기 어려운 두 가지 상반된 정치적 전략을 표명하고 있다. 하나는 각 국가 안에서 시민권을 인정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전역에서 소수 민족 집단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라는 약속의 땅을 찾아 동구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 집시'와 17세기부터 서구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자리 잡게 된 집시들 사이에 커지고 있는 잠재적인 갈등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하는 집시들의 정치적 갈등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³⁰⁾

3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Mathieu Plésiat, *Les Tsiganes, Entre nation et négation*, p. 143.

롬 민족주의자	롬 비민족주의자
문화적 롬의 해방	빈민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주의	사회보장
롬 종족의 해방	사회적 배제에 맞선 투쟁
문화적 장	사회적 장
롬은 존재한다	롬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민족	사회집단
롬언어	sociolecte
롬은 동일한 공동체	모든 빈곤한 사람
사회적 문제	정치, 사회 문제

동구에서 새롭게 이주해온 집시는 민족정체성에 입각한 차이의 정치학보다는 동등한 시민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화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구에서 태어났고 자란 집시는 동화주의를 거부하며 집시의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집시 내부의 차이는 곧 집시가 마주한 정치적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서구가 인종적 폭력에 기대어 비합리적 방식으로 부여한 타자성을 수단으로서 긍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추함, 나태, 범죄로 스테레오타입화한 집시에 대한 규정을 거부하며 동일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것인가?

여기서 전자의 입장은 차이를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 ‘열등한 것’으로 정의하는 서구의 합리성에 맞서 집시집단은 사르트르가 일찍이 “반인종주의적 인종주의”로 규정한 네그리튀드와 마찬가지로 집시 집단 스스로의 자민족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규정되고 보이는 객체가 아닌 스스로 주체성을 형성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비서구인을 타자화시키며 스스로의 ‘합리적 이성’을 형성시킨 유럽의 비합리성을 폭로하는 계기이며 이제까지 객체화되었던 집시가 스스로를 말하고 만드는 기획이기도 하다. 한편 동일한 시민성에 대한 요구는 집시집단을 유럽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과 다시 한 번 동일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계기이다. 오늘날 탈식민시대 유럽에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이주

집시와 국민국가

해 온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차이와 동일성에 대한 양가적 집시의 요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러한 집시의 운동에 반응하는 유럽인들의 응답에 달려있다.

한양대학교, entendu@naver.com

주제어(Key Words):

집시(Gypsy), 국민국가(nation-state), 이주(migration), 배제(exclusion), 정주화(sedentarisation)

(투고일: 2015. 11. 05, 심사일: 2015. 11. 12, 게재확정일: 2015. 11. 24)

국문초록

집시와 국민국가: 프랑스의 차별원리를 중심으로

문종현

19세기 인류학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인종’이라는 개념은 ‘집시’라는 종족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유럽의 인류학자들에게 먼저 발견해야 할 인간들은 비유럽인이자 타자였고 다른 세계였다. 먼저 아메리카에서 시작해서 다른 대륙의 주민까지 유럽인들은 인종과학을 통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해 나아갔다. 유럽에 거주하는 ‘집시’는 이러한 인종과학이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대상이었다. 역사적으로 국가에 의해 다른 인구집단으로 분류되어온 집시가 인종화된 것은 18세기 부터였다. 막연히 로마니첼, 티간느 등으로 불리며 이집트에서 기원한 이주민으로 간주되던 집시는 언어학과 인종학이라는 근대적 지식을 통해 인도-유럽 언어와 인종 학설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종족으로 대상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집시에 대한 인종화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시행된 절멸정책의 피해자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집시는 인종화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유랑민 집단들 중의 일부였다.

<Abstract>

Rom and nation state
: Discrimination in modern French history

Jong-hyun MOON

The Roma, Romani or Gypsy, are a traditionally itinerant ethnic group living mostly in Europe, who originate from the northwestern regions of the Indian. Gypsy are dispersed, with their concentrated populations in Europe, especially Central, Eastern and Southern Europe including France. The Romani people as an ethnic group, or people perceived as being of Romani heritage, are historical victims, discriminated by hostility and prejudice of European people.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the Roma were invented by ethnologist European. They were defined as a origin of Aryan people.

In this article, Romani people will be described as an ethnic made by racial theory and pseudoscience in 19 century. Here the focus of attention lay on the important issues of social status to the Romani. In France, they were controlled in the four principles: exclusion, inclusion, sedentarisation, conversion. In Europe, Romani people are associated with poverty, are accused of high rates of crime and behaviours that are perceived by the rest of the population as being antisocial or inappropriate and still face racism